

술집을 차린 문인들



신동한 문학평론가

술을 즐기는 문인들이 술집을 차린다는 것은 그럴듯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습꽝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시나 소설 등 글을 쓰는 문인들은 대개 술을 즐긴다. 어떻게 보면 술이란 좋은 글을 쓰게 만드는 자극제나 촉진제의 구실도 해주는 것이다. 물론 문인 가운데에는 생리적으로 술을 입에도 못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다. 또 술은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며 금주론을 펼치는 이들도 있기는 하다. 어쨌든 술이란 문학을 하는 문인들에게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만은 사실이다. 인류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후, 지금으로부터 2만년전 신석기시대로부터 있어 왔다는 술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글을 쓰는 문인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기호물로 오늘날까지 엄연히 존재하며 그 권위와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의 대시인 이태백도 술 한 말을 마시고 시 3백 수를 지었다는 전해오는 내력이 있다. 그는 연못에 배를 띄우고 술을 마시며 풍류와 주흥을 달 밝은 밤에 즐기다가 연못 물 위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빠져 세상을 떠났다는 전설까지도 있다. 우리 나라에도 술을 노래와 글로 읊은 시인이나 소설가들은 헤아릴 수 없다. 그 가운데서도 조선시대에 역사에 크게 남는 시작품을 쓴 송강 정철의 술을 노래한 「장진주사」라는 시작품은 너무나 유명하고 술에 관심있는 사람치고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감흥을 되살리기 위해 송강 정철의 시작품 「장진주사」를 아래에 옮겨 본다.

한 잔 먹세그러. 또 한 잔 먹세그러. 꽃꺾어 수놓고 무진무진 먹세그러.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줄라 매고 가나 오색실 화려한 휘장에 만인이 울며 가나, 억세풀, 소세풀, 딱갈나무, 백양 속에 가기만 하면, 누런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회오리바람 불 제 뉘 한 잔 먹자 할꼬. 하물며 무덤 위에 원승이 휘바람 불 때야 뉘우친들 어찌하리.

이 시는 정철 시인의 시집 『송강가사』의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시작품이다. 권주가로서 중국의 이태

그러나 이러한 문인 술집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래 이름을 떨친 집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는 시집까지 내서 술꾼의 관록을 과시한
작고시인 권일송이 청진동에 차린 「흑산도」라는 술집이었다.

백이나 백낙천의 권주가와는 또 다른 경지의 가사 내용이다. 너무 허무감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슴에 젖어드는 애상을 자아내게 하는 시작품이라 할 수 있다. 술을 노래한 시는 동서고금을 통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또 술에 얽힌 산문을 엮은 술꾼 문인들의 문집도 여러 권을 헤아릴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문단 주변에서 수 10년 동안에 책으로 엮어져 나온 것에는 수주 변영로의 『명정 40년』과 무애 양주동의 『문주반생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책으로 되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잡지에 오랫동안 연재한 향파 이주홍의 「주락 태평기」도 크게 꼽아야 할 글들이다.

문인들의 술에 관한 글이나 책은 그렇다 치고 한편 문인들이 술집을 차려 술꾼들을 불러 모은 일도 있었던 것이다. 꽤 오래 된 1970년대 무렵이었지만 어찌 된 셈인지 문인들이 더러 술집을 차려 술꾼의 사교장을 만든 사례가 여럿 있다. 시를 쓰는 김광림이 종로 5가에서 잠시 술집을 꾸민 일이 있었고, 시인 이추림이 당주동에서 술집 겸 냉면집을 차려 장사를 했고, 소설가 박경수도 술집 겸 불고기집을 잠깐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인 술집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래 이름을 떨친 집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는 시집까지 내서 술꾼의 관록을 과시한 작고시인 권일송이 청진동에 차린 「흑산도」라는 술집이었다. 이 술집은 옥호에서도 연상되는 흥어 안주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다. 권일송 시인은 원래 순창 출신이지만 목포에서 대학을 다니고 교편을 잡으며 왕성한 시작품활동을 하다가 1970년대에 서울에 올라와 신문사 논설위원도 하면서 많은 시를 발표하고 있었다. 그런데 권일송 시인은 어떻게 마음 먹었던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술꾼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서울의 한복판 청진동 골목에 흥어 안주 전문의 술집을 차린 것이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문인 술꾼들 사이에 소문으로 퍼져 술집 「흑산도」는 낮이나 밤이나 술을 즐기는 글

문인들의 호주머니는 그리 넉넉하지 못한 것이 대체적인 형편이다. 더구나 술을 즐기는 문인의 경우는 더 한 것이다. 그러나 돈이 없는 술꾼의 문인들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술 마시는데 큰 힘이 안드는 술집 「흑산도」에 몰려 들었다.

쟁이들로 들끓었다. 권일송 시인도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는 시집을 낼 정도니 보통을 넘는 술에 대한 관록을 지니고 있었다. 자기 술집에 오는 아는 문인들을 상대로 대작을 즐겼다. 그러나 이러한 술집의 분위기가 장사에 도움이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장사나 수입에는 거꾸로의 손해만을 입히는 결과가 된 것이다. 문인들의 호주머니는 그리 넉넉하지 못한 것이 대체적인 형편이다. 더구나 술을 즐기는 문인의 경우는 더 한 것이다. 그러나 돈이 없는 술꾼의 문인들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술 마시는데 큰 힘이 안드는 술집 「흑산도」에 몰려 들었다. 우선 술을 마셔 놓고 외상을 긁는 것이다. 술장사치고 외상을 안할 수 없었지만 이런 경우는 좀 지나친 것이었다.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 외상 술값이 쌓여 가기만 하니 술집 「흑산도」를 운영하는 권일송 시인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돈이 없는 문인들이 와서 밤이나 낮이나 술을 마셔대지만 그것을 면전박대하여 외상사절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거기에서 설상가상으로 문인들의 술꾼 가운데에는 술버릇이 나쁜 사람도 있다. 이들은 앞전하고 곱게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어지간히 감당못할 정도로 들어가면 술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술 마시는 옆사람에게 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거나 술상을 엮어 소란을 부린다. 이렇게 되면 술집 분위기는 엉망이 되는 것이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일찍 자리를 뜨고 발길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된다.

이러한 소란의 주인공들은 대부분이 돈이 없어 외상술을 마시는 문인 술꾼들이었다. 그들은 술집 「흑산도」에서 권일송 시인의 혜택을 거꾸로 배은망덕하며 영업방해를 일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이 없이 문인 술꾼들이 협조하여 술집 「흑산도」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나갔다면 이 술집은 오래 오래 유지되고 번창하였을 것이다. 애초에 꿈을 지니고 권일송 시인이 시작한 술집 「흑산도」는 이렇게 해서 오래 견디지를 못하고 저질의 문인 술꾼 등살에 문을 닫게 되었다.

권일송 시인이 하던 술집 「흑산도」의 이야기를 하다가 한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다. 그것은 지난 날 일본에서도 유명한 시인의 한 사람인 구사노신페이도 동경에서 「히노 쿠루마」라는 술집을 차리고 술장사를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구사노신페이는 그 술집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게에는 절대로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외상술을 마시려는 글쟁이 술꾼들을 피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다. 마주 보



게 되면 아는 사람이 요청하는 외상술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구사노신페이은 이 경우를 견디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술수를 썼다. 어떻게 생각하면 떳떳하지 못한 처신이다. 또 그것은 타고난 섬나라 근성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장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권일송 시인은 그렇게 야박한 짓을 못한 것이다. 그래서 글쟁이 술꾼들의 낙원이 되고자 꾸민 술집 「흑산도」의 꿈도 중도에 무참하게 깨지고 말았다.

뛰어난 시작품을 많이 써서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일송 시인의 작품을 애송하고 따랐던 그도 시집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는 제목대로 술꾼의 낙원을 꾸미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신동한(申東漢)

조선일보·한국일보 기자, 한국문인협회 평문분과 회장 역임 / 화관문화훈장 수훈, 월탄 문학상·이주홍문학연구상 등 수상 / 저서 「비평문학산책」 「문단주유기」 「문단천일야화」 등

술은 비와 같다. 비가 오면 진흙밭은 진창이 되어 버리지만
좋은 흙이라면 꽃을 피운다.

- 존 헤이 -